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3, Vol. 17, No. 3, 77~85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옥 주†
철도경영연수원 연구원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성격특성 및 대처양식과 연결시킬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남녀 352명을 대상으로 아이젱크 성격검사(EPQ), Carver의 COPE,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격특성, 대처양식, 학교생활의 적응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에 의하면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문제 중심)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정서지향 중심 대처(정서 대처)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향성자는 문제대처와 정서대처 모두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대처를 사용하지 않고 정서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양식과 적응과의 관련성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할수록 학교적응과 정적상관 즉 적응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향 중심 대처를 할수록 학교적응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적응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수업, 교사 친구, 학교)들간에는 상호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스트레스 대처양식, 아이젱크, 성격특성, 학교적응

주어진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이로 인해 확보된 정신적 자원은 개인의 행동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Gonzales, Tein, Sandler & Friedman, 2001).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주 생활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적응을 학교상황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대처양식)과 개인의 성격특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적응의 주요 지표로 학업성취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학업성취만으로는 적응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홍영란, 2001) 입장이 대두되면서 사회 · 심리적 변인 및 성격변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문의식, 2002).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나 친구관계(Birch & Ladd, 1977; Doll, 1996), 자아 개념(Asher et al., 1990; King etal., 1993), 부모의 양육 태도(O'Brien, 1990) 학습상황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 자신감 및 자기지각,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 성격특성 등이 학교적응의 주요 지표로 다루어져 왔다(Gonzales, Tein, Sandler & Friedman, 2001; Lazarus & Folkman, 1984).

현대의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는 사람마다

† 교신저자 : 이옥주(437-050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산1-4 철도경영연수원 산업심리부, krloj@yahoo.co.kr)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대처라는 구성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복지와 정신적 건강의 주요 예측자가 되기 때문이다(Felton & Revenson, 1984; Scheiver & Carver, 1985).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날 경우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만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경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왔다(Abramovitch, Schreier & Koren, 2000).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의해 결정되는지(구조적 접근), 스트레스 상황의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지 또는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의해 결정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다(상호작용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에서는 대처방식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개념화하고 스트레스 상황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조한다(Lazarus & Folkman, 1984). 즉 개인차(강인함, 자기 효능감 및 일관성)를 고려하지만 환경적 요인과의 인지적 평가라는 전반적인 구조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Lazarus, 1990). 반면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스트레스 상황보다는 개인차와 개인내의 안정적인 구조로 대처방식을 고려한다. 성격특성을 대처양식의 예측인으로 간주하여 성격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대처 양식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Bolger & Schilling, 1991; McCrae & Costa, 1986; Scheier & Carver, 1985) 대처양식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시점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일관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Vollrath, Torgen 및 Alnas(1995)는 6년간의 종단적 연구 결과 성격유형이 범상황적으로 대처양식의 장기적 예측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성격특성을 대처 양식의 예측인으로 다룬 연구들에서는 Eysenck의 성격차원-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및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과 대처양식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다. McCrae와 Costa (1986)는 외향성은 문제중심의 대처방식으로 통칭되는 이성적 행동, 긍정적 사고, 대체 및 억제 등의 대처양식과 의미있게 관련되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적대적 반응, 도피적 백일몽, 자기비난, 철회, 소망적 사고, 우유부단함(indecisiveness) 등과 같은 미숙한 대처 방식의 사용과 의미있는 상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Parker(1986) 역시 외향성은 문제중심의 효과적인 대처양식과 관련이 있는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은 비효과적인 대처양식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ardum과 Hudek-Knezevic(1996)은 외향성은 문제중심 대처와, 신경증적 경향성은 회피전략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반면에 정신병적 경향성은 문제중심의 대처와는 부적으로, 회피전략과는 정적으로 상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ehulkova, Blantny 및 Osecka(1995)의 연구에서는 정서표출, 소망적 사고 및 자기비난과 같은 대처전략은 신경증적 경향성의 주요 전략이고,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성, 사회적 도움 등은 외향성의 주요 대처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회피전략 사용으로 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반면 외향성은 적극적 대처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고 시사하고 있다.

성격 특질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 그리고 적응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결과들(Holahan & Moos, 1986; Taylor, Aspinway, Guiliano & Dakof, 1993; Tolor & pehon, 1987; Wallbott & Scherer, 1991)에 의하면 객관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문제중심 대처는 외향성자의 주요 전략이기 때문에 적응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Gonzales(2001) 등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대처양식, 적응 그리고 행동 및 객관적인 수행결과로서 학업성취를 다루고 있는데, 문제중심의 대처가 적응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성취는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대처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문제 중심의 대처가 좋은 성적을 예측하지만 스트레스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질, 대처양식 및 학업성취, 적응간의 관계성을 조사한 Gallagher(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취가 높은 외향성과 성취가 낮은 외향성간에는 사회적 지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서적 혼란을 경감시킬 의도로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

하고 있다.

현재 성격특성과 대처양식을 다룬 연구들은 있지만 적응과 관련시킨 연구들은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양식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경기도 소재 신도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352(남자 129, 여자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지역은 평준화 지역으로 연구참여자의 학력 및 기타 수준은 보통이다. 제작된 질문지를 2002년 10월 학급 담임교사에게 질문지 응답방법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학생들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Eysenck와 이현수 공저(1985)의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신병적 경향성(P) 외-내향성(E), 신경증적 경향성(N), 허위성(L)의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의 대처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Carver(1997)의 COPE 단축형(4점 척도)을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사한 후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학교생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학교 생활 적응 질문지(문선모, 1984 등) 가운데 본 연구자가 필요한 문항들을 선택하여 문항간 신뢰도 검사 후 학교 적응 행동을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5점 척도).

분석 방법

대처 양식 질문지와 학교생활 질문지에 대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다. 성격특성, 대처양식,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성은 각 변인의 하위척도간에 상관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성격특성, 대처양식, 학교생활 적응의 역할과 기능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생활 적응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학교생활 적응 질문지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하여 요인분석 방법 중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를 구하여 전체 신뢰도가 .70 미만이거나 전체문항과의 상관이 .30 미만인 문항은 최종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학교생활 질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학교생활 질문지(학교 적응)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수업(요인1)	학우(요인2)	교사(요인3)	학교(요인4)
28	**-.557**	.119	.000	.243
23	**-.546**	.000	.009	.406
1	**.537**	.288	-.508	.164
12	**.534**	-.297	.006	.255
2	**.529**	.265	-.344	.162
26	**-.503**	.008	-.005	.287
15	**.481**	-.009	.008	.117
10	**.477**	-.165	-.003	.346
14	**.471**	-.411	.139	.006
16	**.471**	-.196	.008	.225
5	**.466**	.215	-.434	.236
24	**-.453**	.199	-.007	.236
19	**.435**	.373	.353	.110
7	**.426**	-.230	-.002	.246
18	**.407**	.406	.216	-.008
21	.438	**.529**	.216	-.007
20	.300	**.472**	-.005	-.002
13	.334	**-.436**	.008	.108
17	.427	**.433**	.226	.003
8	.362	-.108	**.510**	-.004
9	.386	-.149	**.475**	.362
3	.445	-.008	**-.449**	.279
6	.323	-.146	**-.410**	-.007
4	.305	.356	**.384**	.009
27	-.498	.203	.123	**.523**
22	.234	.297	-.004	**-.404**
25	-.375	.263	.003	**.389**

요인 1에 부하된 문항은 수업에 대한 만족을 묻는 문항들이므로 요인 1은 수업으로 명명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73이다. 요인 2는 학교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학우로 명명하였고 신뢰도는 .68이다. 요인

3은 교사에 대한 태도로서 교사로 명명하였고 신뢰도는 .72였다. 요인 4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이므로 학교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72였다. 학교 적응 전체의 신뢰도는 .83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 양식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을 측정하는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무관심', '음주를 통한 감정 표출', '정서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지를 구하는 내용' 등의 문항으로 정서 중심 대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대책을 강구하거나', '상황의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거나',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문항들로 문제 중심 대처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Cronbach 알파계수는 .77과 .73으로 나타났다. 상관이 .40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총 22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성격특성과 대처양식, 학교생활의 적응간의 관계

성격특성과 대처양식, 그리고 학교 생활의 하위척도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학교적응과 문제중심 대처양식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서중심 대처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성을 보면, 외향성의 경우 수업, 동료, 교사 및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반면 정신증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에서는 대부분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2〉 스트레스 대처 양식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정서지향(요인1)	문제해결(요인2)
5	**.688**	.102
15	**.594**	.046
10	**.584**	.294
23	**.549**	.326
3	**.508**	-.015
16	**.486**	-.300
13	**.475**	-.212
9	**.470**	.156
21	**.465**	-.083
6	**.454**	-.174
26	**.425**	-.057
8	**.418**	-.189
11	**.404**	-.278
4	**.403**	-.243
19	.353	.201
22	.280	.141
27	.222	.034
14	.000	**.664**
12	.007	**.657**
17	.139	**.632**
25	-.004	**.594**
7	-.117	**.550**
24	.027	**.493**
2	-.011	**.452**
20	-.110	**.440**
18	.062	.228
1	.200	.210
28	.144	.161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한 모형 검증

성격특성, 대처양식, 학교생활의 적응간의 인과관계를

〈표 3〉 성격특성과 대처양식, 학교생활의 적응간의 상관 계수

	정서대처	문제대처	수업	친구	교사	학교	정신증	외향성	신경증
정서대처									
문제대처	-.035								
수 업	-.199**	.259**							
친 구	.022	.348**	.269**						
교 사	-.013	.228**	.437**	.254**					
학 교	-.195**	.257**	.325**	.283**	.350**				
정 신 증	.087	-.283**	-.237**	-.209**	-.229**	-.288**			
외 향 성	.083	.257**	.221**	.517**	.109**	.076	-.108*		
신 경 증	.421**	-.253**	-.301**	-.242**	-.220**	-.205**	.069	-.189**	

*p<.05, **<.01

살펴보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은 Lisrel를 이용한 최대 가능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입력자료는 변인들 사이의 상관행렬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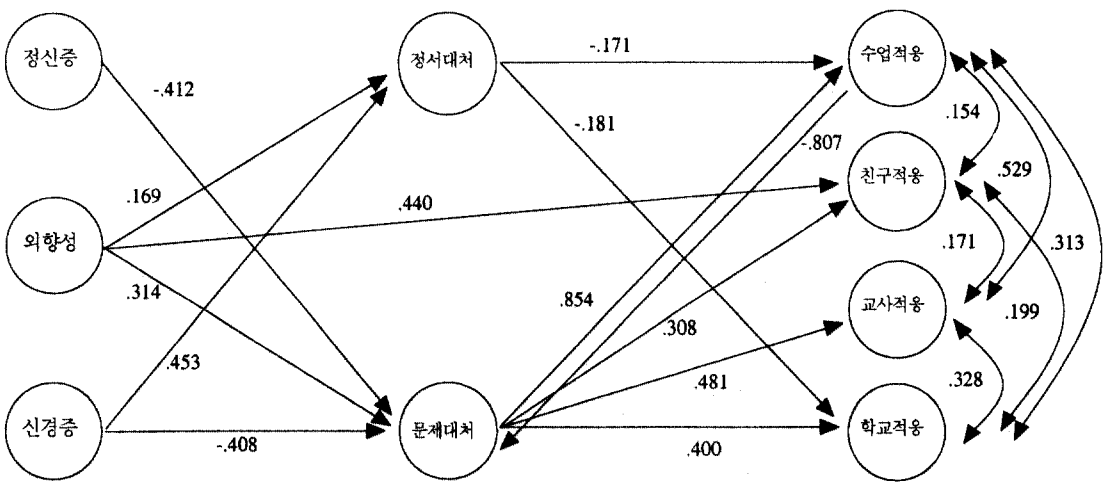
〈표 4〉 성격특성 대처양식, 학교적응에 대한 관계모형의 Lisrel 분석 결과(최종모형)

자유도	χ^2	GFI	AGFI	RMSR	N
17	47.68	.972	.925	.069	352

경 로	표준화 경로계수	고정지수 (표준오차)
정신증 → 문제대처(γ21)	-.412*	-5.225(.079)
외향성 → 정서대처(γ12)	.169*	3.542(.048)
외향성 → 문제대처(γ22)	.314*	4.339(.072)
외향성 → 친구적응(γ42)	.440*	10.060(.044)
신경증 → 정서대처(γ13)	.453*	9.514(.048)
신경증 → 문제대처(γ23)	-.408*	-4.850(.084)
정서대처 → 수업적응(β31)	-.171*	-3.283(.052)
정서대처 → 학교적응(β62)	-.181*	-3.888(.047)
문제대처 → 수업적응(β32)	.854*	5.638(.152)
문제대처 → 친구적응(β42)	.308*	5.371(.057)
문제대처 → 교사적응(β52)	.481*	5.610(.086)
문제대처 → 학교적응(β62)	.400*	5.697(.070)
수업적응 → 문제대처(β23)	-.807*	-3.907(.206)
수업적응 ↔ 친구적응(Ψ43)	.154*	2.404(.064)
수업적응 ↔ 교사적응(Ψ53)	.529*	4.938(.107)
수업적응 ↔ 학교적응(Ψ63)	.313*	3.767(.083)
친구적응 ↔ 교사적응(Ψ54)	.171*	3.506(.049)
친구적응 ↔ 학교적응(Ψ64)	.199*	4.393(.045)
교사적응 ↔ 학교적응(Ψ65)	.328*	5.407(.061)

Lisrel분석 결과 얻어진 모형(최종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 지수와 경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GFI(goodness fit index), AGFI(adjusted GFI)는 .90 이상으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R (root mean square residul)은 .05 이하이어야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준으로는 다소 부적합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FI와 AGFI 기준에 의하면 이 모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화살표에 있는 수치는 고정지수(T-value)의 절대값 2보다 크기 때문에 모두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특성과 두 가지 유형의 대처 양식은 모두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는 사용하고 않고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의 경우는 두가지 대처 방식을 모두 사용하지만 문제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중심 대처를 사용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 가운데 외향성은 학교적응 가운데 친구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대처는 친구적응과 교사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중심



〈그림 1〉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성격특성과 대처양식의 관계 모형(최종모형)

대처는 학교 적응 변인 모두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변인들간에는 수업적응은 문제대처와 직접적인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학교 적응 변인들간에는 상호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주 생활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응에 관계될 것으로 간주되는 두 요인, 즉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격특성과 대처 양식을 개별적으로 다룬 공변량 구조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기초 부합치는 모두 .90이상으로 관계모형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allagher(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과 대처양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와는 부적으로, 정서중심 대처와는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 이것은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사실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정서적 지원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전 연구(Carver et al., 1986; Endler & Parker, 1990)에서도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수동적이고 부적응적 대처양식을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이런 대처양식은 자신이 지금하고 있는 행동이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이며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한 행동을 인해 도리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신경증적 경향성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Eysenck, 1994). 이들은 일상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이 부정적인 반응양식은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사건에 다시 노출되는(Bolger & Schilling, 1991)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때조차도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Bolger & Schilling, 1991). 정신병적 경향성의 경우도 문제 중심 대처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데 신경증적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외향성의 경우 두 가지 대처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 중심의 전략이든 정서 중심 지원이든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일단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일 경우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긍정적인 인지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경증적 경향성이나 정신병적 경향성에 비해 적응을 잘 하게 된다. 또한 외향성은 학교적응 변인 가운데 친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내향성자에 비해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려는 동기가 강하고 사회적 관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Waston & Hubbard, 1996).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성격특성과 대처양식의 관계 모형에 따르면<그림1 참조> 성격특성은 대처양식에 직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처양식은 학교적응을 직접적으로 예측해주는 예측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제중심의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서 중심의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중심의 대처와 수업 적응이 직접적인 양방향 관계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업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그러나 수업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 중심의 대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 중심의 대처 전략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본 연구의 결과자료를 가지고 인과성을 추론한 것이지 본 연구에서 그 인과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다. 추론한 모형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은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성격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개별 성격차원보다는 이들 사이의 결합된 성격특성이 (예를 들면 외향성은 높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낮은) 대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보다 예측력 높은

자료가 얻어 질 것이다. 또한 학교 적응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학업성취를 다루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옥주 (2002). 고등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7(3), 487-501.

홍연란 (2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대처방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적응. 아동간호학회지, 6(3), 362-371.

Abramovitch, D., Schreier, A., & Koren, N. (2000). American medical students in Israel :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s. *Can. J. Counsel., 25,* 19-32

Allen, S. & Hiebert, B. (1991).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s. *Can. J. Counsel., 25,* 19-32.

Bolger, N. & Schilling, E. A. (1991). Personality and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 the role of neuroticism in exposure and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59,* 355-386.

Buescher, T. M. & Higham, S. J. (1987). *Influences on strategies adolescents use to cope with their own recognized talen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Washington, DC.(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88 285).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 s too long :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92-100.

Compas, B.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Dumont, M. & Provost, M.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43-362.

Ebata, A. T. & Moos, R. H. (1995). Personal, situational, and contextual correlates of cop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4,* 99-125.

Eysenck, H. J. (1994). The big five factor or giant three : criteria for a paradigm. In C.R. Halverson Jr., G.A. Kohnstamm, & R.P. Martin(Eds.), *The developing structure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from infancy to adulthood*(pp. 37-5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Felton, B. J. & Revenson, T. A. (1984). Coping with chronic illness : a study of illness controllability and the influence of coping strategie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343-353.

Finney, J. W. & Moos, R. H. (1995). Entering treatment for alcohol abuse : a stressed coping model. *Addiction, 90,* 1223-1240.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Folkman, S. & Lazarus, R. S. (1986). Stress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7-113.

Gallagher, D. J. (1996). Personality, copying, and objective outcomes : extroversions, neuroticism, copying styles, and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3),* 421-429

Gonzales, N. A., Tein, J., Sandler, I. N., & Friedman, R. J. (2001). On the limits of coping :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for inner-cit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4),* 372-395.

Herman-Stahl, M. A., Stemmler, M., & Petersen, A. C.

(1995). Approach and avoidance coping : implications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733-753.

Holahan, C. J. & Moos, R. H. (1986).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89-396.

Holahan, C. J. & Moos, R. H. (1986).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46-955.

Kardum, I. & Hudek-Knezevic,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Eysenck's personality traits, coping styles and moo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341-350.

Kardum, I. & Krapic, N. (2001). Personality traits,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styles in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503-515.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 McGraw-Hill.

Lazarus, R. S. (1990). Stress, coping, and illness. In H.S. Frieman(Ed.), *Personality and disease*(pp. 97-120). New York : Wiley.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Londo n : Oxford University Press.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Lazarus, R. S. & Launier, R. (1978).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A.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pp.* 287-327). New York : Plenum.

McCrae, R. R. & Costa, P. T., Jr.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5.

Parkes, K. R. (1986). Coping with stressful episodes :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77-1292.

Rehulkova, O., Blatny, M., & Osecka, L. (1995). Adolescent's coping styles : a relationship to the temperament. *Studia Psychologica, 37,* 159-161(From Kardum, I. & Krapic, N.,2001).

Ruchkin, V. V., Eisenmann, M., & Hagglof, B. (1999). coping styles in delinquent adolescents and controls : the role of personality and parental rear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705-717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Swiatek, M. A. (2001). Social coping among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19-39.

Taylor, S. E., Aspinwall, L. G., Guiliano, T. A., & Dakof, G. A. (1993). Storytelling and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703-733.

Wallbott, H. G. & Scherer, K. R. (1991). Stress specificities : differential effects of coping style, gender, and type of stressor on autonomic arousal, facial express, and subjec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47-156.

Wills, T. A., McNamara, G., Vaccaro, D., & Hirky, A. E. (1996). Escalated substance use : a longitudinal grouping analysis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66-180.

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3, Vol. 17, No. 3, 77~85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nd Stress Coping Styles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Lee, Ok Ju

National Railroad Training Center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personality traits and stress coping styles as predictor of school adjustment in the adolescent. To verify it relational model between variables was constructed. In this model personality traits were set as intermediate variables effecting on the stress coping styles and stress coping styles were set effecting directly on school adjustment in the adolescent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52 high school students.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were Eysenck's EPQ, Carver's brief COPE, and school adjustment. GFIs of all models were over .90. It was supported that personality traits effected on stress coping styles and stress coping styles effected on school adjustment in the adolescent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Personality traits were important in predicting stress copying styles; extraversion had relation with problem solving(accepting reality) and emotional seeking support(denial) coping styles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neuroticism had negative relation with solving problem (accepting reality) and positive relation with seeking support(denial). Psychoticism had negative relation with problem solving coping strategies.

Problem solving coping strategies had relation with school adjustment in the adolescent positively, but emotional seeking support(denial) coping styles had negatively.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previous researches, which support stress coping would be stable styles related to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tress coping would act as predictor of school adjustment in the adolescent

Key words : Eysenck, extraversion, neuroticism psychoticism, stress coping style

원고접수 : 2003년 10월 17일
심사통과 : 2003년 11월 20일